

# 청년들 창작하기 좋은 광주 만든다

### 문화예술기획자 양성·문화기획자 멘토 운영 구도심 문화관광 활성화 '청춘문화누리터' 도

#### 광주시, 청년예술인 실태 조사·지원 계획

광주시가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교육 운영',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ODA)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같은 지원 계획은 광주시가 실시한 '청년예술인 실태 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지원계획안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사업 추진' 등이 포함돼, 지역 청년들이 창작하기에 좋은 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광주시는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교육 운영'을 통해 매년 문화기획자 지망생 15명 내외를 선발, 현장강의(60강)와 팀·개별 프로젝트 및 네트워킹 포럼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기획자 멘토(담임교장)를 운영하고 컨설팅 등도 지원해 예술계 '씨앗'이 될 청년예술인(예비)을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 '기초예술단체 육성지원' 등은 예년과 같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 예산이 2028년까지 각각 2억 6000만 원, 1억6500만 원, 1억6000만 원으로 매년 증액 없이 고정적으로 편성돼 있어 점진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 예술인들을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기획 중인 '청춘문화누리터',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사업', '아시아 문화도시 문화교류 ODA 사업' 등도 이목을 끈다.

광주공원 및 구도심 일원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예정인 '청춘문화누리터' 사업은 '청춘문화누리터 zone 조성', '청춘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또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사업'은 청년예술인(만 19세~39세)을 문화예술단체 등에 배치해 인간미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교류 ODA' 사업은 아시아권 도시의 문화와 상호 문화 이해를 근간으로 도시별 문화자원을 교류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22~23년에 동시대적 아젠다를 발굴하고 아시아 도시 활성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1~2차 년도 사업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지원안의 토대가 됐던 청년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12월)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20~30대 광주 청년예술인은 총 1813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장르는 음악(713명) 분야이며 미술(296명), 국악(2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예술인들의 주 활동 지역은 서구(26.6%), 북구(22.6%), 동구(1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작 분야 36.9%, 실연자(공연 등) 21.4%, 문화예술 교육자가 1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예술인들의 소득은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6.7%에 달했으며, 2000만 원 미만(64%), 2000만 원 이상(29%)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해 '루프x판소리 심청' 공연을 펼친 소리꾼 박은비. <광주문화재단 제공>

전업 예술인은 46.4%, 겸업 예술인은 44.1%였으며 '예술활동을 중단했다'는 응답도 9.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불규칙한 소득'(51.4%)을 꼽았다. 이에 대해 필요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25.1%의 응답자가 '최저생활 보장'을 들었다.

예술가들은 '지속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 72%가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예술지원 사업을 신청해 본 경험은 26.3%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수혜 기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6.3%, 지역문화재단이 14.4%를 기록했다.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반에 못미치는 49%가 "알고 있다"라고 답변해, 지역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광주 청년 예술인들이 활약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리춤' 역할을 하는 것이 광주시와 문화재단 등 제반 기관들의 중요한 책무"라며 "향후 청년예술인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제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50여 일 앞둔 2004년 7월, 당시 비엔날레 재단을 출입하던 기자는 막바지 행사 준비로 바쁜 전시팀을 찾았다. 재단이 인재육성 차원에서 처음으로 선발한 4명의 비엔날레 인턴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만난 4명의 인턴들은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였다. 비엔날레 기간동안 외국작가들과의 이메일 교환에서부터 작품제작에 필요한 자재 확보 등 큐레이터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주인공이 있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남화연(당시 25-

다. 지난 20일 개막한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 건립 30주년 특별전 라인업이었다. 강익중, 서도호, 김홍석, 마이클 주, 문경원&전준호 등 내로라 하는 한국작가 36명에 당당히 선정된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베니스비엔날레 (4월20~11월24일)기간 중세진물인 몰타기사단에서 K-미술의 위상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작가로서 더할 나위 없는 영예다.

20년 전, 비엔날레 인턴이었던 그녀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새삼 광주비엔날레의 높인 위상을 실감하게 된다. 올해는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된 지 30돌이 된 뜻깊은 해여서 더욱 그렇다. 1995년 163만 명이라는 기

## 베니스에서 광주비엔날레를 본다

여)인턴이었다. 4명 중 유일하게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뉴욕 파슨스 디자인학교에서 아트마케팅을, 코넬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재원이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예술에 대한 열정이었다. 관객과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그녀는 비엔날레에서의 경험들을 자산으로 삼아 좋은 작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있고 지냈던'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 2015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의 한국작가로 김아영, 임흥순과 선정됐다는 뉴스였다. 게다가 세계 최고(最古)의 비엔날레 본전시에서 광주출신으로는 최초이자,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은 '비엔날레 키드'(Kid)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화제가 됐다. 이후 미디어아티스트로 국내외 무대를 누빈 그녀는 201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임명됐다.

최근 그녀의 이름 석자를 또 한번 접하게 됐

특적인 관람객을 유치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광주비엔날레는 30년동안 국제미술의 흐름을 견인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 특히 이용우, 김선정, 이숙경 등 한국인은 물론 마시 밀리아노 지오니, 오쿠이 엔리체(1963~2019), 아이 웨이웨이, 제시가 모건, 마리아 린든 등 비엔날레를 거친 역대 외국 감독들은 '광주'를 디딤돌 삼아 파워 미술인으로 맹활약중이다.

그럼에도 광주비엔날레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그중에 하나가 작가 양성이다. 초창기에 비해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지역작가들이 늘고 있지만 대화가 끝나면 시나브로 '무대'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제적인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선 개인적 역량이나 열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롯이 작가들의 영역으로 돌리는 건 직무유기가 아닌지 한번쯤 되돌아볼 일이다. 인재양성은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과제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 1913송정역시장 플라마켓 야시장 가볼까

27일 오후 4시~밤 9시...난장 콘서트·K-pop·EDM 파티 등 다채

1913송정역시장(송정역시장)은 지난 1913년 '매일송정역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 지금의 1913송정역시장이라는 명칭은 KTX 개통 이후 100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 붙여졌다. 이곳에는 늘 송정역 인근 주민들, 전라도 사람들,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사람들로 붐비만큼 교통의 요충지였다.

송정역시장은 지난 2016년 전통시장 활성화와 광주시 대표 관광상품을 목표로 1900년대 복고풍 전통시장으로 단장했다.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길거리 중심으로 볼거리를 만들고 야시장 등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전통시장과 접목해 '문화체험형 전

통시장'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리네상스사업추진단(단장 김인기)이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1913송정역시장에서 플라마켓 야시장을 연다.

먼저 4시에는 빼빼로 풍선아트 무료 체험이 진행되며 이어 난장 콘서트 '매직쇼-육쇼!'가 펼쳐진다. 난장 콘서트에는 가수 송준을 비롯해 금은별, 신이나가 출연해 관객에게 신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K-pop, EDM party도 예정돼 있다. 1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대표 스트릿 댄스팀인 잭팟크루와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댄스팀 킵댄스 아카데미 댄스팀도 참여할 예정이다.



가수 송준(왼쪽)과 신이나.

김인기 단장은 "송정역시장은 100년 역사를 넘는 유서 깊은 시장"이라며 "이번 플라마켓 야시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KTX를 이용해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 추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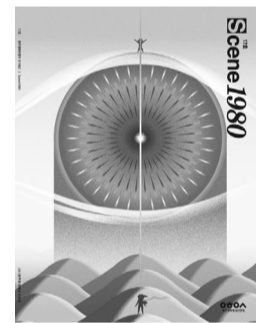
## 영화비평 계간지 '썬1980' 17호 나와

### '스크린셀러 도서 전' 등 조명

'광주-전남의 대안 영화공간들', '버터내고 존재하는 지역영화', '광주의 영화공부모임', '전주 독립영화에 대한 목소리'...

광주전남의 지역영화 이슈를 돌아보고 지역영화의 미래에 대해 제안하는 영화 잡지가 발간됐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최근 펴낸 광주 영화비평 계간지 '썬1980' 17호가 그것.

'썬1980'은 평균 80페이지 분량으로 1000부 가량 인쇄해 광주극장, 지역서점 및 영화단체, 영화인, 서울과 부산 등 영화 단체에 무료로 배포 중인 영화 전문 매거진이다. 이번 호에는 오는 26일~6월 30일 동구 인문학



당에서 열리는 '스크린셀러 도서 전' 소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책과 영화가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인문학당 조대영 프로그램 디렉터가 풀어냈다.

'클로즈업' 코너에는 썬1980 김수진 편

집장이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라는 제목으로 교사영상모임 '참네모' 인터뷰를 담았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상영 세션 초청작 '올리브'의 김소영 감독에 대한 작품론 등도 함께 게재됐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